

국내 인력통계간 주요특징 및 인력현황 비교

신우철*

1. 서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등 국내 인력구조 및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지표가 중요해졌다. 국내 산업별 인력현황과 고용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통계별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인력현황 값을 제공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인력통계들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주요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통계간 차이를 밝히고, 더 나아가 전산업, ICT 산업의 통계별 인력현황을 비교하여 향후 인력통계 활용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실 신우철 연구원, (043)531-4256, wcshin@kisdi.re.kr

**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현준 외(2016)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생산성계정 구축 및 ICT와 과학기술 활용도 분석”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 인력통계별 주요특징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월 주기로 전국의 3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을 조사하여 국민 거시경제 지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산업별 인력현황은 취업자 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1963~201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시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한다.

〈표 1〉 취업자 정의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자료: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04&kosisYn=Y>, 2017. 9. 11 접속)

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1년 주기로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부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통계조사의 모집단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별 인력현황은 사업체 종사자 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사업체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및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의미하며,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간이 판매상이 조사범위 내 제외된다. 산업별 종사자 수는 1993~2015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수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시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한다.

〈표 2〉 사업체 정의

<p>·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로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p> <p>①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p> <p>②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p> <p>③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p> <p>④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p>
--

자료: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37&kosisYn=Y>, 2017. 9. 11. 접속)

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1년 주기로 고용형태부문(2006~2016)과 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시계열 유지를 위한 임금구조부문(1980~2016)으로 나뉜다. 임금구조부문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¹⁾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하여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전국사업체조사와 동일한 사업체 조사이지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한 전국사업체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산업별 인력현황은 상용근로자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형태부문 및 임금구조부문의 원시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자료신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1) 1980~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 1999~2015년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라.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는 반기 주기로 만 15세 가구원 약 199,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 현황을 보여준다. 산업별 인력현황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수준의 산업분류 정보를 제공한다. 2008~2017년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시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한다.

마. 산업연관표의 고용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는 1년 주기²⁾의 가공통계로 고용구조와 노동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취업(피용)자수, 실제근로시간, 취업 및 고용 계수 등을 제공한다. 고용표의 취업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한 인원이며, 전업환산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집계한다. 전업환산기준은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환산한 취업자 수 및 피용자수를 의미한다. 산업분류는 한국은행의 상품 및 산업분류를 따르며 소분류 수준에서 제공한다.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인력통계별 주요 특징

구분	경제활동 인구조사	전국 사업체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연관표 고용표
인력현황지표	취업자 수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 수	취업자 수	취업자 수 ¹⁾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기간	1963~2016	1993~2015	2006~2016	2008~2017	1975~2014 ²⁾
조사주기	월	연	연	연, 반기, 분기 ³⁾	연

2) 2005~2014년은 1년 주기, 그 외 연도는 1~5년 주기로 75, 80, 83, 85, 86, 90, 95, 98, 00, 03년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를 확인할 수 있음

구분	경제활동 인구조사	전국 사업체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연관표 고용표
조사방법	표본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가공
조사대상	개인	사업체	사업체	개인	개인
산업분류 ⁴⁾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소분류	소분류

- 주: 1) 전업환산기준으로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환산한 취업자 수 및 피용자 수
 2) 2005~2014년은 1년 주기, 그 외 연도는 1~5년 주기로 75, 80, 83, 85, 86, 90, 95, 98, 00, 03년 고용표를 제공
 3) 2008~2010년 연간조사, 2010년 4분기~2012년 4분기 분기조사, 2013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반기조사 실시
 4)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는 한국은행의 상품 및 산업분류를 따름, 그 외 통계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출처: 정현준 외(2016) 재구성

3. 통계별 인력현황

가. 전산업

통계간 전산업 인력현황은 사업체, 가구 등 조사대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사업체조사 보다 가구조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인력현황을 나타낸다. 우선 가구조사인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산업 취업자 수는 2,624만 명으로 지역별고용조사의 취업자 수(2,658만 명)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며, 2010~2016년 전연도간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2014년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2014년 2,357만 명으로 동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2,560만 명)의 92.1%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사업체 조사인 2015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 수는 2,089만 명으로 동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2,594만 명)의 80.5% 수준을 나타낸다.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의 상용근로자 수는 964만 명으로 동년 경제활동인구조사(2,594만 명)의 37.2%,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2,089만 명)의 46.2% 수준으로 인력통계

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전산업 인력현황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볼 경우, 우선 취업자 수 기준을 따르는 통계의 인력현황은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1~2013년 1.6~1.8% 수준에서 2015~2016년 1.2~1.3% 수준을 보이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역시 2013년(4.7%) 이후 감소세로 2015~2016년(1.1~1.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취업자 수 역시 2011년(3.8%) 이후 감소세를 나타낸다. 한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의 인력현황은 증가세로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2011년 2.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5.0%를 기록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의 상용근로자수의 경우 2013년(1.3%)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4〉 인력통계별 전산업 인력현황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	23,829 (-)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599 (2.1)	25,936 (1.3)	26,235 (1.2)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수	17,647 (-)	18,093 (2.5)	18,569 (2.6)	19,173 (3.3)	19,900 (3.8)	20,889 (5.0)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 상용근로자수	7,699 (-)	8,067 (4.8)	8,570 (6.2)	8,684 (1.3)	9,227 (6.3)	9,644 (4.5)	10,221 (6.0)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수	24,054 (-)	24,125 (0.3)	24,402 (1.1)	25,545(4.7)	25,951 (1.6)	26,298 (1.3)	26,577 (1.1)
산업연관표 고용표 취업자수	21,422 (-)	22,231 (3.8)	22,991 (3.4)	23,171 (0.8)	23,568 (1.7)	-	-

주: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산업연관표 고용표(한국은행)

나. ICT 산업

ICT 산업의 인력은 해당통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이하 수준을 제공할때 집계 가능하다. 이에 대분류 수준의 산업분류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서 ICT 산업의 인력을 집계할 수 없으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의 상용근로자 수를 통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의 ICT 인력을, 그 외 통계에서는 소분류 수준의 ICT 인력을 집계할 수 있다.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의 ICT 산업 취업자 수는 101만 명으로 타 인력통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전국사업체조사의 2015년 ICT 산업 종사자 수는 89만 명으로 동년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114만 명)의 77.8% 수준이며, 2014년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ICT 산업 취업자 수는 90만 명으로 전국사업체조사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으로 ICT 산업을 구분한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상용근로자 수는 101만 명으로 지역별고용조사의 취업자 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사자 수와, 고용표의 취업자 수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ICT 산업 인력현황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1~2015년 증가세를 보여, 전산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와는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 반면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는 2011~2015년 감소세로 전산업 취업자 수의 증가세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4〉 인력통계별 ICT 산업의 인력현황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사업체조사	766 (-)	801 (4.6)	824 (2.9)	853 (3.5)	864 (1.3)	885 (2.4)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	749 (-)	698 (-6.8)	761 (9.0)	792 (4.1)	1,042 (31.6)	990 (-5.0)	1,006 (1.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별고용조사	1,057 (-)	1,038 (-1.8)	1,045 (0.7)	1,048 (0.3)	1,075 (2.6)	1,138 (5.9)	1,095 (-3.8)
산업연관표 고용표	869 (-)	876 (3.0)	875 (-1.4)	860 (-1.3)	897 (4.6)	-	-

주: 1)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주: 2) 통계별 산업분류 제공수준에 따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의 ICT 산업은 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대분류 J.정보통신업(58~63)으로 정의, 전국사업체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위 분류에서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11.우편업을 제외하여 ICT 산업으로 정의

주: 3)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ICT산업은 한국은행 2010년 기준 산업분류 소분류 082.반도체 제조업, 083.전자표시장치 제조업, 084.인쇄회로기판 제조업, 085.기타전자부품 제조업, 086.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087.통신 및 방송기기 제조업, 088.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28.유, 무선 통신업, 129기타 전기통신업, 130.방송업, 131.정보서비스업, 13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3.컴퓨터 관리 운용관련 서비스업, 135.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정의

자료: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산업연관표 고용표(한국은행)

4. 결론

통계별 인력현황은 조사대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가구 대상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의 전산업 취업자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산업연관표 고용표의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이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사업체 대상으로 한 전국사업체 조사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간이판매상, 프리랜서 등이 조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구대상 통계보다 낮은 수준의 인력현황을 보인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의 상용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장 좁은 범위의 인력현황을 제공한다.

2016년 기준 지역별고용조사의 전산업 취업자 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상용근로자 수보다 2.6배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력현황의 수치는 통계간 큰 차이를 보이며, 연구목적에 따라 어느 통계를 활용할지는 통계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정현준 외(2016),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과학기술 활용도 분석”, 『과학기술과 ICT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03-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웹사이트]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04&kosisYn=Y>, 2017. 9. 11 접속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01&confmNo=101037&kosisYn=Y>, 2017. 9. 11. 접속

[데이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고용표